



성탄 나무를 만들어요

이윤희 · 사비나 | 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

학습목표

성탄의 의미를 알아보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성탄 트리를 만들어 본다.

준비물 : 마분지, 볼펜, 가위, 작은 비늘, 흰 실, 천(세 가지 색깔), 방울, 카시미론 솜, 시침핀, 나무 모양 본, 젓가락

선생님들께

아이들과 성탄 나무를 만드는 시간으로 꾸며 봤습니다.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교리 시간을 고려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도입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12월이 되면 거리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거리마다 어디를 가든지 성탄 노래가 울리고 선물을 마련하거나, 카드를 사는 사람들로 붐비지요? 또, 모처럼 가족들이 다 모여 성탄 나무를 함께 만드는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일까요? (이야기를 들어 본다.) 그래요, 예수님께서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럼 오늘은 선생님과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탄 나무를 만들어 봐요.

전개

우리 친구들, 작년에 성탄을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나요? (이야기를 들어 본다.) 성탄을 보내고 나서 후회하거나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요?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려한 성탄절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요.

성탄절이면 선물을 나누고 나무를 장식하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우리가 늘 푸른 나무에 장식을 하는 것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선생님과 즐거운 성탄을 맞아 성탄 나무를 만들어 봐요.

작업 삼각 성탄 나무 만들기

준비물 : 마분지, 볼펜, 가위, 작은 바늘, 흰 실, 천(3가지 색깔), 방울, 시침핀, 카시미론 솜, 풀, 성탄 나무 그림본, 젓가락

- ① 성탄 나무 그림본을 마분지에 풀로 붙이고 가위로 자른다. (그림본은 디다케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 ② 천을 겹과 겹이 마주 보도록 반으로 접어서 두 겹을 만든 후 본을 볼펜으로 잘 보이도록 그린다. (3장 모두) 이때 창구멍을 꼭 표시해야 한다.



- ③ 본을 대고 그린 성탄 나무를 시침핀으로 고정시키고 모양대로 세 장 모두 촘촘하게 홈질을 한다. 창구멍은 막으면 안 된다.
- ④ 성탄 나무 모양을 그린 천에 시접을 1.5cm정도 두고 자른다. 이때 가윗밥을 넣어 주고 모서리는 V자로 자른다.



- ⑤ 홈질한 성탄 나무를 창구멍으로 뒤집는다.
- ⑥ 모서리 부분은 바늘로 뺀다.
- ⑦ 완성된 세 장의 천을 똑바로 겹친 다음 시침핀으로 고정시킨다.
- ⑧ 고정시킨 천의 앞장에 가운데 세로줄을 볼펜으로 자를 대고 그린 후 선을 따라 촘촘하고 튼튼하게 홈질한다.
- ⑨ 창구멍으로 젓가락을 이용해 솜을 구석구석 넣는다. 솜을 다 넣은 후 창구멍을 감침질한다.
- ⑩ 완성된 성탄 나무에 방울을 달아 마무리한다.





작업2 부직포 성탄 나무 만들기

준비물 : 흰색 부직포, 성탄 나무 그림본, 마분지, 연필, 얇은 빨간 털실, 두꺼운 바늘, 얇은 리본, 구슬, 카시미론 솜, 가위, 글루건

- ① 성탄 나무 그림본을 마분지에 붙이고 자른다.
- ② 부직포에 본을 대고 연필로 그린 후(창구멍을 표시한다.) 1.5cm 시접을 두고 자른다.
- ③ 본 모양 대로 털실로 너무 촘촘하지 않게 홈질을 한다.
- ④ 부직포를 뒤집지 말고 창구멍으로 솜을 얇게 넣은 후 창구멍을 꿰맨다.
- ⑤ 리본과 구슬을 글루건으로 붙인다.
- ⑥ 문 앞에 걸어놓을 수 있도록 리본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완성된 성탄 나무 뒷부분에 글루건으로 붙인다.

정리

어때요? 예쁜 성탄 나무를 만들어 보니 정말 성탄이 더 기다려지죠?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만든 성탄 나무를 보면서 더 설레고 기쁜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받기만 하는 성탄절을 보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모두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성탄절을 보내세요. 오늘 만든 것을 기쁨을 전해 주고 싶은 친구에게 선물한다면 참 좋겠지요?

마침 기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어린이 미사 102번)